

안동종친회 제72회 정기총회 개최

안동권문의 분향인 안동의 안동권씨 제 72회 정기총회가 2018년 6월 28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안동시 안기천로18 종친회관 3층 회의실에서 권주연 회장 등 남녀 중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권박 사무국장은 개회선언과 함께 권영세 안동시장, 권오진 예안향교전교, 태사모(삼문중대) 권오국 대표, 권수철 육동회장, 평화동회장 권중구, 도산면 회장 권오용, 예안면 권정규, 와룡면 권정수, 남후면 부회장 권영덕, 남선면회장 권

중근, 운안동부녀회장 권오향, 북야공파 종회 및 대종원 권오의 부회장, 권기호 종회장, 권인탑 정조공파회장, 권동섭 일직면장, 권기섭 일직면조합장, 권대능 안동청년회장, 임하면 총무 권중순 등 참석하신 내빈을 한 분 한 분 소개하였다. 권주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몇 년간 종친회장을 연임하는 동안 족친들의 따듯했던 애정 덕분에 별 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인탑 정조공파 종회장의 고무적인 축

사가 있었고, 11시 45분에 감사보고와 권박 국장의 결산 및 경과보고가 있었다. 임원 개선에서는 권재주 고문이 임시의장이 되어 참석자 전원의 추천과 만장일치로 권숙동(전 서울의 초등학교, 고등교육부 이사관을 역임했던) 고려정비사장이 금번 72회 안동종친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권영수 천리건설사 대표(북야공파 사헌공파 34世)와 권순창 농협와룡지점전무(37世) 등은 감사로 선임되었다. <취재 권혁세>

권해옥 대종회 회장 대한민국 헌정회 표창



공로패
사무총장 권해옥
제13대, 14대 국회의원
2011.3-2015.3
귀 회원께서는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헌정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본회 창립 제50주년을 맞이하여 전 회원들의 고마움을 이 때에 담아 드립니다.
201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유용태

대한민국 헌정회 창립 제50주년 기념식이 2018.07.17.(화) 11:20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권해옥 대

종회 회장은 대한민국헌정회 창립 제5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헌정회 사무총장으로 헌정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

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권해옥 회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헌정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안동종친회 임원회의 개최



안동종친회(회장 권숙동)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종친회관 2층 회의실에서 권재동, 권중준 대종회 고문을 비롯하여 권재주, 권주연 안동종친회 고문, 일로회원, 권기창 안동대 교수, 부회장,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안동종친회 회장이, 취임식과 종친회 연중행사 개

선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권숙동 종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동종친회는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주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하나로 뭉쳐야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폭염이 12일째 계속되고 있어서 모든 생활들이 햇볕에 타서 말라가고 있지만 우



리 족친들은 용기를 잃지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권주연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안동종친회 제27, 28대 두대에 걸쳐서 회장을 하는 동안 족친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하고 "그동안 건물이 노후화되어 물이 새는 등 안동종친회관 건물을 새로 깨끗하게 고쳐 놓으니 기분이 좋다"며 회고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권숙동 회장은 2대에 걸쳐서 안동종친회장을 역임한 권주연 전 회장에 감사장과 은수저 1세트를 선물로 증정했다. 곧 이어 부의(附議) 의안(議案)으로 채택된 "안동종친회 단합대회(伏會) 개선에 관한 건"은 올해 복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복회를 열지않고 신년인사회 때 내실있고 성대하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보도부장 권영진>

부산종친회 전체 임원회의 개최

부산종친회(회장 권영호)에서는 지난 7월 12일 저녁 전체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제 42차 정기총회 결산과 2019년 전국청장년 체전 준비를 논의하기 위한 임원회의에는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 대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영호 회장은 토의에 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족친들을 초치하여 소개하는 한편, 연초 새 단체장에 취임한 당원직 임원 등 4인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어서 인사말을 통해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를 무릅쓰고 임원회의에 참석하는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올린 다음, 반가(班家)의 긍지와 자부심에서 우리나라의 종친회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오늘날 우리 종친회의 밑거름임을 강조하고, 지난 정기총회도 그 마음들이 모여 조성한 3천여만 원에 가까운 성금으로 500명이 넘는

족친을 잘 모시게 되었다며 사의를 표하였다. 아울러, 상반기 단체별 총회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자문위원회 경훈 위원장, 천등회 영훈 회장, 부녀회 옥순 회장, 개인택시회 승근 회장, 금정종친회 영길 회장 등의 새 집행부에도 축하와 함께 더욱 발전적이고 활기찬 단체로 육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청년회가 주관할 '2019 청장년 전국체육대회' 준비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가 되었음을 천명하고 무엇보다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드는 만큼 차근차근 잘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뒤이어 격려사에 나선 전국추사체서에 인화장 오관 자문위원은 총회를 잘 마무리한 집행부의 노고 치하와 함께 종친회의 단합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는 요지의 인사와 함께 족친 모두의 하절기 건강



을 기원하였으며, 계속된 임원회의의 임호 감사의 '총회 감사 결과'와 사무국장의 '정기총회 결산 및 자체 평가' 보고가 이어졌다. 이어진 임원회의는 2019년 제 31회 청장년 전국체육대회를 주관할 대회장에 김수청년회장, 준비 위원장에 도영 직진 청년회장, 후원회장에 영호 종친회장을 정식으로 추대하는 한편, 내년도 체육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자는 결의를 끝으로 1부 회의를 마치고, 만찬과 함께 정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2부 행사도 잘 마무리 되었다. <부산 사무국장 권재영>

정조공파 제14회 장학금 지급 및 보학강좌 개최



안동권씨 정조공파(회장 권인탑)에서는 2018년 7월25일 오전 11시 안동시 동부동 정조공파 회관에서 제14회 장학금 지급 및 보학강좌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먼저 권순복 총무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님 파조님 묘소 망배에 이어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명지대학교 권순원 의 22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인당 50

만원 총 일천일백 오십만원(1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금년까지 14회에 걸쳐 558명에게 일억칠천이백만(172,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장학금 지급에 이어서 권인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회장께서 직접 보학강좌를 실시하였다. 무더운 삼복기간에 원근에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안동권씨의 사성유래와 안동권씨의 자랑스러운 사시에 대한 설명과 시조님의 묘소와 남중공 단소의 춘추향사, 안동태사묘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금년에 고려중기 인물 권정평 선조의 묘지명에 따른 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설명할 때는 참석자 모든 분들이 수회에 걸쳐 박수갈채를 보내며 의미 있는 보학강좌를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마쳤다.

별장공파종회 제30차 정기총회 개최



별장공파종회(別將公派宗會: 회장 권순협)는 7월 13일 오전 11시 안동시 송현동 안동봉화축협 2층 목향대회의실에서 <2018년 별장공파종회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권영목, 권세환, 권재주, 권기덕, 권경용 등 고문을 비롯하여 권영세 안동시장, 권숙동 안동종친회장, 권택기 전 국회의원, 안동, 영주, 포항, 영천, 문경, 영덕, 봉화, 예천, 영양 등지의 종원(宗員), 부녀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권순창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묘소 망배(望拜), 상우례(相擧禮)를 하였다. 권순협 파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에서 족친들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총회에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

히 고맙다"고 인사한 후 "족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쁘신데도 핑계로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며 "저는 안동권문에 누(累)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고 있으며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불만과 감정을 야기(惹起)시키지 말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숙동 안동종친회장은 축사에서 "별장공파의 가족적인 모습을 보니 아름답다"고 서두를 꺼낸 뒤 "종전 안동권씨의 일부 모임에서 고향과 샅대질을 하였으나 앞으로의 모임은 즐겁게 자주 만나고 화합하고 단결하자"고 강조했다. 권택기 전 국회의원은 문중 어른들에게 큰절을 올리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 구두를 벗고 큰절을 하고 나서 "어른들을 잘 모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족친 간 단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명숙 별장공파 부녀회장은 "앞으로 젊은층 부인들이 행사에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앞으로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권영세 안동시장은 축사에서 "지난번 시장 선거 때 적극적으로 보내준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는 뜻에서 안동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가 끝나자 곧 이어 감사보고와 결산보고를 하고 나서 부의된 안건을 토의한 결과 오는 10월 12일 충북 음성군 양촌 권근 선생의 3대 묘역 참배와 행주산성의 권율장군 발자취를 답사하도록 결정하였다. 총회가 끝나자 참석한 종원들은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서 소고기, 문어, 떡, 과일, 술, 음료수 등 푸짐한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환담을 나누다 헤어졌다. 이날 권준우씨(포항)가 200명분의 문어를, 권경용씨가 떡, 권태구씨가 과일 등 세 종원이 톨품찬조를 하였으며 권순협 파종회장이 참석자 전원에게 김 1세트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보도부장 권영진>

안동권씨 경산시 종친회

안동권씨 경산시 종친회(회장 권오홍) 권영승 사무국장, 권중태, 권성욱, 권기덕, 권택진, 권성분 등 회원 42명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에 버스로 이동하여 11시 30분에 시조묘와 남중공 단소를 참배하였다. 권혁세 기자는 취재와 안내를 하기 위해 일행과 동행했다. <취재 권혁세>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종보 대금 3만원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 ♣ 2018년 8월부터 종보 대금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예금계좌 : 농협 301-0235-6546-41(안동권씨 대종회)
- ♣ 문의전화 : 02-2695~2843-4

안동권씨 대종회